

독서 태도와 읽기 성취도 분석이 시사하는 학교도서관 독서 교육의 방향*

- 중학교를 중심으로 -

Reading Education at School Libraries: New Consider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Students' Attitudes Toward Reading and their Reading Achievements

권 은 경(Eun-Kyung Kwon)**

<목 차>

- | | |
|--|--------------------------------|
| I. 머리말 | V.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보는 중등학생의 독서 태도 |
| II. PISA 2009로 본 우리나라 학생의 읽기 성취도 | VI. 학교도서관의 독서 교육에 대한 시사점 |
| III. 독서 태도 관련 요인 | VII. 맺는말 |
| IV. PISA 2009에 분석된 독서 태도와 읽기 성취도의 상관관계 | |

초 록

급격하게 감소하는 중학생들의 독서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독서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PISA 2009의 읽기 영역 중 독서 태도와 읽기 성취도의 상관관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독서 태도와 독서 동기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는 높지만 독서 태도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즐거움을 위한 독서가 읽기 성취도와 강한 정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즐거운 독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장서가 풍부한 학교도서관, 스스로 선택한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독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독서를 다른 교육적 목적의 수단으로 강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성별, 읽기 능력, 독서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태도, 독서 경험과 독서량, 독서 자료의 유형, 독서 시간 등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을 범주화하여 차별화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키워드: 학교도서관, 독서 교육, PISA 2009, 읽기 성취도, 독서 태도, 독서 동기, 국민독서실태조사, 독서 증진

ABSTRACT

In an attempt to promote read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which has been declining sharply, this study suggests new directions for reading education in school libraries. The study examined the following: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attitudes toward reading and their reading achievements as revealed in PISA 2009, nationwide survey results on reading, and studies on attitudes and motives for reading. Korean students' reading achievement is very high among the OECD countries but their reading attitude is not positive enough. The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leasure reading and reading achievement indicates the importance of the provision of ample collections at school libraries as well as library programs fostering independent, free-will reading. Reading programs at school libraries should cater to studen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needs, such as their sex, abilities, affective and cognitive attitudes, experiences, as well as the quantity, the formats, and the time of their reading, etc.

Keywords: School Library, Reading Education, PISA 2009, Reading Achievement, Reading Attitude, Reading Motivation, Survey Report on Reading, Reading Promotion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eunkwon@daegu.ac.kr)

• 접수일: 2012년 11월 20일 • 최초심사일: 2012년 11월 28일 • 최종심사일: 2012년 12월 26일

I. 머리말

독서는 매우 개인적인 활동이지만 그 중요성과 가치는 개인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정부가 2006년에 『독서문화진흥법』 제정하고 다시 2012년을 『국민독서의 해』로 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독서, 책 읽기의 중요성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문자와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인지능력 개발뿐 아니라 모든 교육과 학습을 위한 기본 수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의 독서활동 지원과 독서 교육은 정보활용 교육과 함께 학교도서관이 추구하는 교육 기능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일차적 역할이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교 교과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충분하고도 적절한 읽을 거리를 제공하고 즐거운 독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학교도서관의 기본 역할이다.

OECD에서 조사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의 읽기 영역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성취도는 OECD국가 중 최상위권에 있다. 그러나 즐거움을 위해서 독서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약70%에서 약60%로 10% 정도 감소하였으며¹⁾, 『국민독서실태조사』(이하 『독서실태조사』)에서 보는 학생들의 독서율과 독서량 역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²⁾ 읽기 성적은 높지만 책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은 독서활동, 특히 꾸준한 독서 활동에는 읽기 능력과는 별개의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 읽고 어휘력이 풍부한 어린이는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단어의 의미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더 잘 읽게 되는 반면에 부족한 어휘력의 어린이는 읽기 속도가 느리고 재미가 없어서 더 적게 읽고 그 결과로 어휘력의 개발이 더디고 이것이 독서 능력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현상은 '마태의 효과'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독서의 목적이 읽기 성적 향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서의 효과로 읽기 성적이 향상되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독서에 대한 즐거움의 정도가 읽기 성적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이 PISA 2009에서 분석되었다.

학교도서관의 관심은 읽기 성적의 향상에 있지는 않다. 학교도서관의 관심은 학생들이 독서를 즐기고 즐거운 독서 경험을 통해 독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독서를 실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주는 것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독서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여 독서가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교도

1) PISA IN FOCUS 2011/8(September) <<http://www.pisa.oecd.org/dataoecd/34/50/48624701.pdf>> [cited 2012. 3. 8].

2) 한국출판연구소, 2010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0), p.152.

3) Keith E. Stanovich, "Matthew effects in reading: Some consequenc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acquisition of literacy,"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21, No.4(1986), pp.360-407. (마태복음 25장 29절의 "가진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구절에 비유됨)

서관은 읽기 성적의 향상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즐거운 독서가 학생들의 읽기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생들의 주요 독서 환경인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 사실은 다시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독서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연구는 중학생의 독서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학교도서관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특별히 중학생의 독서와 중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현상적으로 중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및 장서량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⁴⁾으로 드러날 뿐 아니라 『독서실태조사』에서도 중학생의 독서활동이 초등학교에 비해 급격하게 저조해진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는 중학생 시기는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에서 독서의 주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공부나 입시 부담에서 다소 여유로운 시기인 한편 발달 단계적 측면에서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해 가는 매우 복잡한 발달과정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가 독서활동 및 독서 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중학생들의 독서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지도 방안을 고찰할 목적으로 학생의 읽기 성적, 독서 태도, 독서 실태, 그리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으로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하 PISA) 2009 중 읽기 영역의 분석 결과와 『독서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특히 PISA 2009는 참여국 학생들의 읽기 성적에 대한 분석과 함께 독서 태도와 읽기 성적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독서 태도라는 정성적 변인의 작용 결과를 읽기 성적이라는 표준화된 수치로 보여줌으로써 독서 태도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증명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하다. 한편 『독서실태조사』는 PISA에서 제공하지 않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 태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PISA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만 15세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정보는 2009년에 조사된 것이며, 조사 대상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내용은 중·고등학생의 독서 특성을 이해하고 중·고등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 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2011년도의 초등학교도서관 1관당 예산은 11,366원, 중학교 8,789원 고등학교는 13,674원이며, 1관당 장서량은 각각 12,069.5권, 9,972.1권, 그리고 10638.9권이다.(출처: 2011 한국도서관연감(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11), p.459의 전국 통계치를 계산하였음.). 이러한 실태는 박철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만족도 조사 연구(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5), pp.53-55; 최재황, 박철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만족도 조사 연구(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5), pp.22-36; “학교총괄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 [인용 2012. 10. 13]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II. PISA 2009로 본 우리나라 학생의 읽기 성취도

PISA는 OECD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평가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인 만 15세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층화표집하여 읽기, 수학, 과학 세 영역의 소양(literacy)을 평가한다. 2000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별로 주 평가 영역을 설정하여 매 주기 해당 주 영역의 소양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PISA 2009에서는 PISA 2000에 이어 읽기 영역⁵⁾이 주 영역으로 심층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4,99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중학생이 약 10%(2학년 3.7%, 3학년 6.6%), 고등학생이 약 90%(1학년 87.2%, 2학년 2.5%)로 구성되어 있다.⁶⁾ 국내에서는 PISA 결과를 통해 교육성과와 변화 추이를 국제 수준에서 비교분석하는 한편 국가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⁷⁾

읽기 영역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PISA 2000에서부터 줄곧 최상위권에 속하였다. PISA 2000에서 6위(525점), 2003에서 2위(534점), 2006에서 1위(556점)를 차지하였으며, 2009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점수는 539점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536점인 핀란드와 함께 95% 신뢰수준에서 1~2위를 차지하였으며, 65개 전체 참여국 중에서는 1위인 상하이-중국에 이어 2~4위를 차지하였다.

PISA 2009에서 우리나라 학생의 읽기 성적 평균과 수준별 비율을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면, 2수준 미만의 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매우 낮고 3수준 비율은 OECD 평균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고 4수준의 비율 역시 3수준과 거의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성적이 상향평준화된 특성을 보인다.

〈표 1〉 PISA 2009의 읽기 성적과 수준별 비율(단위: 점수/학생비율)

구분	전체 평균	남학생	여학생	2수준미만 (262~407)	2수준 (407~480)	3수준 (480~553)	4수준 (553~626)	5수준 (626~698)	6수준 (698이상)
우리나라	539	523	558	5.8	15.4	33.0	32.9	11.9	1.0
OECD	493	474	513	18.8	24.0	28.9	20.7	6.8	0.8

(수준별 성적은 원 데이터에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시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였음)

5) “reading”은 저자에 따라 “독서”와 “읽기” 양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문장의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는 “읽기”, 책 읽기 또는 책 읽기의 흥미와 관련된 경우는 “독서”를 사용하였다.

6) 김경희 등,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2009)-본검사 시행 보고서-(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p.94.

7) 김경희 등,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2009) 결과 보고서(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조지민 등,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교육정책 개선 방안(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이 논문에서 사용한 기본 데이터는 2010년 12월에 발표된 OECD PISA 2009 결과를 우리나라 중심으로 정리한 김경희 등(2010)의 자료에 따랐으며 기본 데이터에는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읽기 성적은 반올림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역시 김경희 등(2010)의 자료에 따랐다.

그러나 보다 상세한 비교에서는 상위 5%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658점)은 OECD 평균(637점)보다는 높지만 전통적인 읽기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 핀란드(666점), 캐나다(664점), 뉴질랜드(678점), 호주(668점) 등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표 1>의 수준별 비율에서도 5수준과 6수준에서 우리나라는 OECD평균보다는 높지만 읽기 최상위 국가들과 비교하면 높은 편은 아니며 특히 6수준에서는 가장 낮다.⁸⁾ 우리나라 학생의 읽기 평균 성적은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성적 학생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PISA 2009에 참가한 모든 국가에서 여학생의 읽기 성적은 남학생에 비해 높고 점수 차이는 PISA 2000에서 32점, PISA 2009에서 39점으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PISA 2000에서 남학생은 519점 여학생은 533점으로 14점 차이가 났으며 PISA 2009에서는 남학생 523점 여학생 558점으로 35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의 성별에 따른 점수 차이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격차는 더 급속하게 벌어지고 있다.

Ⅲ. 독서 태도 관련 요인

PISA 분석에 따른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성적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서율과 독서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학생들이 독서하지 않는 문제는 읽기 능력의 부족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읽기가 싫고 재미가 없어서, 즉 부정적인 독서 태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독서실태조사』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독서(읽기) 태도는 '독서를 대상으로 좋고 싫음의 평가를 내리고 그러한 평가에 따라 독서 상황에 접근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반응을 일관되게 산출하는 심리적 경향'으로 정의되며, 독서 태도는 독서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의미하는 정서적 요인, 독서와 다양한 속성을 연결하는 신념을 의미하는 인지적 요인, 그리고 독서에 대한 사람들의 행위를 포함하는 행동 요인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⁹⁾

그러나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적 경향성, 즉 독서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곧 바로 독서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독서 동기가 있을 때 독서 행위가 발생한다. 동기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는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개인의 독서 성향을 의미하는 독서 흥미나 독서 태도에 비해 독서 동기는 독자로 하여금 독서 행위를 실행하게 하는 보다 직접적인 심리적 기제를 의미한다.¹⁰⁾ 독서 동기는 그 동기 유발의 자발성과 목적성에 따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되며, 독서 동기와 독서 빈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내재적

8) 김경희 등, 2010, 전계서, p.83.

9) 정혜승, "읽기 태도의 개념과 성격," 독서연구, 제16호(2006), pp.383-405.

10) 이순영, "독서 동기와 몰입 독서의 영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26집(2006), pp.403-425.

동기가 더 강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

우리나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학생의 전체적인 읽기 태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하는데 2학년을 분기점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독서 태도가 더 좋으며 전체 독서 태도 점수와 독서 태도를 구성하는 정서, 인지, 행동의 세 가지 영역별 점수의 상관관계는 모두 높지만 그 중에서도 정서 영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독서를 재미있고 즐거운 것으로 느끼는 것이 청소년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결론을 내렸다.¹²⁾

읽기 동기는 읽기 선택과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요인이고 읽기 태도는 읽기 자체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이를 지원해주는 간접적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중학생의 독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읽기 동기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중학생의 읽기 동기와 읽기 태도간의 상관계수는 .689로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학년별로 상관계수가 높은 동기의 하위 요인은 1학년의 경우 경쟁, 효능감, 몰입, 사회적 이유의 순으로, 2학년에서는 몰입, 효능감, 경쟁, 인정, 그리고 3학년에서는 몰입, 효능감, 경쟁, 호기심의 순으로 나타났다. 몰입, 효능감, 경쟁은 중학생 전체에게 가장 중요한 읽기 동기이지만 1학년에서는 경쟁, 사회적 이유를 포함하는 외적 동기가 3학년에서는 몰입, 효능감, 호기심과 같은 내적 요인이 다소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그런데 읽기 동기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독서 동기를 적용하여 분석한 바, 우리나라 중학생의 독서 동기 구성 요인은 사회적 상호 작용, 인정-중요성 인식, 읽기 효능감, 흥미, 몰입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¹⁴⁾으로 분석되었다.¹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독서 동기의 1순위는 사회적 상호작용-흥미이며 그 다음으로 인정, 읽기 효능감, 몰입-호기심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독서 동기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⁶⁾ 이것은 읽기 동기에서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 점에 대해서 연구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읽기 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책을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 구축과 책이나 책의 내용을 소재로 토론하는 기회가 많아진 것이 그 이유며, 내적 요인인 읽기 효능감보다 외적 요인인 사회적 요인이

11) 상계논문, p.414.

12) 서수현, 정혜승, “중학생의 읽기 태도 양상,” 독서연구, 제27호(2012), pp.258-283.

13) 최숙기, “중학생의 읽기 동기와 읽기 태도에 관한 상관성 연구,” 독서연구, 제23호(2010), pp.345-380.

14)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에는 서점이나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가, 도서 정보를 자주 검색하는가, 책을 읽은 후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5) 박영민, “중학생 읽기 동기의 구성 요인,” 독서연구, 제16호(2006), pp.297-334.

16) 이영진, 조성만, 권태현, “고등학생의 읽기 동기 요인 분석,” 독서연구, 제24호(2010), pp.345-386.

더 부각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교육적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¹⁷⁾

독서 태도, 독서 동기는 독서 행위에서 독자 요소이며 정의적 요인이다. 실제의 독서 행위에서 독서는 독자와 독서 자료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독서 자료는 독서의 재미나 유용성의 관점에서 독자의 정의적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독서가 이루어지려면 적절한 읽기 능력과 함께 읽기가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라는 기대(태도), 그리고 독서과정을 지속하기에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즐거운 독서 자료가 전제되어야 한다.¹⁸⁾ 이 선행조건이 충족될 때 주의를 집중하고 이해하는 실제의 독서과정이 진행된다. 그리고 독서의 결과로서 기쁨이나 즐거움과 같은 정서적인 변화나 지식의 습득 같은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독서 과정에서 또는 독서가 끝난 후에 얻게 되는 변화가 부정적이면 독서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이 변화가 대체 가능한 다른 활동보다 더 즐거운 경우 독서는 지속될 수 있다.

IV. PISA 2009에 분석된 독서 태도와 읽기 성적의 상관관계

PISA 2009는 학생들의 독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즐거움을 위한 독서 활동(reading for enjoyment)에 대한 참여 정도와 읽기 전략의 사용 정도를 조사하고 이 변인들이 읽기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즐거움을 위한 독서와 읽기 성적의 관계에 한하여 살펴보았다. 조사된 하위 영역에는 독서에 대한 즐거움, 독서 자료 유형, 온라인 읽기, 즐거움을 위한 독서 시간 등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1. 독서에 대한 즐거움

PISA 2009에서 우리나라 학생의 독서에 대한 즐거움 지수¹⁹⁾는 0.13으로 PISA 2000의 0.06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다. OECD 평균은 PISA 2000과 PISA 2009 사이에 0.05에서 0.02로 떨어졌다. 성별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여학생의 지수는 0.27로 남학생의 0.00보다 높다. 우리나라 남학생의 지수는 OECD 남학생 평균지수 -0.29 보다 높지만 여학생의 지수는 OECD 여학생 평균 지수 0.32보다 낮다.

17) 박영민. 전제논문, pp.317-318.

18) Victor Nell, "The Psychology of Reading for Pleasure: Needs and Gratifications,"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23, No.1(1988), pp.6-50.

19) 독서의 즐거움을 조사하는 문항의 예로는 '나는 다른 사람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선물로 책을 받으면 기쁘다', '나는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을 즐긴다' 등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서에 대한 즐거움 지수는 평균 0, 표준편차 1로 표준화한 점수이다.

우리나라 학생의 독서 즐거움의 지수에 따른 성적 차이는 사분위로 나누었을 때 최하위25%의 평균 성적은 495점, 최상위 25%의 평균은 584점으로 즐거움의 지수가 높을수록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²⁰⁾

2. 독서 자료의 유형

잡지, 만화, 소설류, 비소설류²¹⁾, 신문 등 다섯 가지 자료 유형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자주 읽는가 조사하였다. 각 자료에 대한 응답 척도는 '전혀 또는 거의 읽지 않는다'에서 '일주일에 몇 번'까지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일주일에 몇 번'과 '한 달에 몇 번' 읽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순위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은 소설류(46.6%), 신문(45.1%), 만화(40.5%), 비소설류(30.0%), 잡지(21.2%) 순이며 남학생은 만화(49.8%), 신문(46.6%), 소설류(40.8%), 비소설류(27.4%), 잡지(17.2%), 그리고 여학생은 소설류(53.2%), 신문(43.4%), 비소설류(33.0%), 만화(30.2%), 잡지(25.6%)의 순이다. OECD 평균에서는 신문(59.4%), 잡지(55.9%), 소설류(31.5%), 만화(24.5%), 비소설류(18.1%)의 순인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소설을 읽는 비율이 높고 신문과 잡지를 읽는 비율이 낮다.

자료 유형에 따라 읽는 학생과 읽지 않는 학생간의 성적 차이가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비소설류 32점(562/530), 소설류 30점(556/526), 신문 29점(556/527)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잡지와 만화의 경우 유의하지는 않으나 잡지는 -1점(539/540), 만화는 -9점(534/543)으로 읽지 않는 학생의 성적이 읽는 학생보다 높다.²²⁾

〈표 2〉 독서 자료의 유형과 읽기 성적의 관계

구분	비소설		소설		신문		잡지		만화	
	읽음	안읽음	읽음	안읽음	읽음	안읽음	읽음	안읽음	읽음	안읽음
우리나라	562	530	556	526	556	527	539	540	534	543
성적차이	32		30		29		-1		-9	
OECD	513	492	533	480	501	484	501	486	492	495
성적차이	22		53		16		15		-3	

OECD 평균에서 자료 유형에 따라 읽는 학생과 읽지 않는 학생간의 성적 차이가 큰 순서로 보면 소설류 53점, 비소설류 22점, 신문 16점, 잡지 15점, 만화 -3점으로 소설류에서 월등한 차이가 나타

20)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OECD교육지표: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1(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11), p.114.

21) 자료 유형 'fiction', 'non-fiction'은 김경희 등(2010)의 전계서에는 소설류, 비소설류로 표현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의 OECD교육지표(2011)에서는 문학, 비문학으로 표현하고 있다.

22) 상계서, p.117.

난다.²³⁾ 소설류의 독서에 따라 성적 차이가 큰데, 우리나라 학생을 성별로 비교하면 소설을 읽는 남학생의 읽기 성적은 545점 읽지 않는 경우는 508점으로 38점 차이가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읽는 학생은 565점 읽지 않는 경우 551점으로 15점 차이가 있다.²⁴⁾ 소설류 읽기는 남학생의 성적에 더 큰 차이를 가져온다. 만화는 OECD 평균이나 우리나라에서 모두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온라인 읽기 활동

학생들의 온라인 읽기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메일 읽기, 온라인 채팅, 온라인 뉴스 읽기, 온라인 사전 또는 백과사전 활용, 특정한 주제의 온라인 정보검색, 온라인 토론 참여, 온라인으로 실용적 정보검색 등 7개 항목에 대한 참여 정도를 조사하고 지수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은 -0.21, 남학생 -0.27, 여학생 -0.13으로 모두 OECD 평균(전체 0.00, 남학생 0.03, 여학생 -0.03)보다 낮고 여학생이 온라인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과의 관계는 온라인 읽기 활동 정도를 사분위로 나누었을 때 참여 정도가 25% 이하인 경우 성적 평균은 519점, 25~50% 범위인 경우 546점, 50~75% 범위는 553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위 25%의 성적은 539점으로 분석되었다. 즉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 모두 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즐거움을 위해 독서하는 시간

즐거움을 위한 독서 시간은 '읽지 않음', '하루에 30분 미만', '하루에 30분 이상 60분 미만', '하루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하루 2시간 이상'의 단위로 조사되었다.

〈표 3〉 즐거움을 위한 독서 시간과 읽기 성적의 관계

구분	읽지 않음		30분 이하		30분~1시간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비율	성적	비율	성적	비율	성적	비율	성적	비율	성적
우리나라	38.5	518	29.8	550	19.1	558	8.4	560	4.2	535
OECD 평균	37.4	460	30.3	504	17.2	527	10.6	532	4.5	527

즐거움을 위해서 독서하지 않는 우리나라 학생의 비율이 38.5%로 OECD 평균인 37.4%보다도 높고, 독서하는 학생의 비율도 시간이 가장 짧은 30분 이하에서 가장 많고 독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학생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독서 시간과 성적의 관계는 시간이 길수록 성적이

23) 상계서, p.117.

24) 김경희 등, 2010, 전계서, p.220.

올라가지만 1~2시간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보이고 2시간 이상에서는 성적이 다시 낮아진다.

이와 같은 전반적 현상은 우리나라 학생과 OECD 평균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읽지 않아서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의 평균과 읽기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의 평균 차이가 42점으로 OECD 평균 차이인 72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과 비록 평균 성적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1시간에서 2시간 독서하는 학생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낮고 다른 최상위 국가인 핀란드(12.7%), 홍콩(13.2%)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²⁵⁾

전혀 읽지 않는 학생과 읽는 학생의 평균 성적의 차이(우리나라 33점, OECD 63점)가 읽는 시간에 따른 성적 차이(최고 점수에서 최하 점수를 뺀 값: 우리나라 25점, OECD 28점)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읽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보다 꾸준한 읽기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V.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보는 중등학생의 독서 태도

학생들의 독서 태도와 독서 활동에 관하여 PISA 2009에서는 조사되지 않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독서실태조사』²⁶⁾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독서율, 독서량, 독서시간, 독서의 목적, 독서의 장애요인, 독서의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²⁷⁾

1. 독서율과 독서량

1995년 이후 초·중·고등학생의 한 학기 독서율은 다소의 변화는 있으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서 2006년을 기점으로 다소 높아졌다가 2011년에 다시 크게 떨어지고 있다.

2011년 초등학생의 93.8%가 1년에 한 권 이상의 책(일반도서)을 읽은 데 비해 중·고등학생은 각각 79.3, 79.1%로 초등학생에 비해 약 15%가량 떨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독서율은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초등 남학생 91.4% 여학생 96.4%, 중학 남학생 77.0% 여학생 81.7%, 고등 남학생 67.7% 여학생 90.0%로 고등학생에서 남녀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중학교 남학생의 23.0% 여학생 18.3%, 고등학교 남학생 32.3% 여학생의 10.0%가 201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

25) 상계서, p.228.

26) 한국출판연구소, 2008년 국민독서실태조사(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08).

한국출판연구소, 2009년 국민독서실태조사(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09).

한국출판연구소, 2010년 국민독서실태조사(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0).

한국출판연구소,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1).

27) 이 논문의 주요 관심은 서론에서 밝혔듯이 중학생의 독서 특성을 이해하여 중학교도서관의 독서지도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중학생의 독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특성을 함께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찾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관점에서 분석대상에 이들 데이터를 포함하였다.

〈표 4〉 한 학기 독서율과 독서량 변화 추이(일반도서)

연도	독서율				독서량			
	전체	학교급별			전체평균	학교급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1년	83.8	93.8	79.3	79.1	12.2	22.5	9.1	9.7
09년	93.7	98.0	93.5	89.5	16.0	27.6	12.3	8.1
06년	89.6	96.1	87.9	84.9	14.0	24.0	10.2	7.7
02년	89.6	95.5	89.1	84.1	11.6	20.5	7.6	6.6
95년	97.1	98.9	96.1	96.4	14.9	22.9	10.9	9.7

(독서량은 2010년 이전까지는 한 학기(6개월) 단위로 조사되었으나, 2011년도에는 연간으로 조사되었다. 변화의 추이를 살피기 위하여 연간 독서량을 2로 나누었음)

2011년 『독서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중학생의 독서 특성은 초등학교에 비해 독서율과 독서량에서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점 외에 남학생의 독서량이 더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²⁸⁾ 2011년 중학교 남학생의 연간 독서량은 평균 15.4권, 여학생은 13.5권인데 독서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남학생은 20.0권 여학생은 16.5권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읽지 않는 남학생의 비율이 32.3%로 여학생 10.0%의 세 배 이상인데 독서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남학생은 21.7권 여학생은 17.8권으로 남학생의 독서량이 더 많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성별 분석에서도 동일하다. 즉 독서하는 학생의 비율은 여학생이 높지만 실제로 독서하는 학생의 독서량은 남학생에서 더 많다.

2. 독서시간

2009년에서 2011년까지 학생들의 독서시간을 평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연도별 변화는 크지 않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독서시간은 줄어들며 초등학생과 중학생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보인다.

〈표 5〉 평일 독서 시간 (단위: 분)

연도	전체	초등학생(남/여)	중학생(남/여)	고등학생(남/여)
2011	41.8	58.8(56.8/60.8)	38.4(37.4/39.4)	30.1(25.8/34.1)
2010	41.0	57.0(56.0/57.0)	36.0(38.0/35.0)	30.0(29.0/30.0)
2009	45	56	40	38

2010년도의 조사내용²⁹⁾에서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을 일반도서를 중심(만화 잡지 제외)으로 살펴보면 하루 동안 전혀 독서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생 11.8%, 중학교 36.7%(남학생 37.4%, 여학

28) 국민독서실태조사는 2010년도 조사부터 학교급 및 성별로 분석하고 있다.

29) 2010년의 조사에는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이 전체 학생 평균과 독서하는 학생의 평균 시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2011년 조사에는 전체 평균만 있다.

생 36.0%), 고등학교 45.4%(남학생 48.4%, 여학생 42.6%)로 중학생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런데 비독서자를 제외하고 독서하는 중학생의 평일 독서 시간은 57분, 고등학생은 55분으로 초등학생 64분과 비교하여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독서하는 학생의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지만 독서하는 학생의 독서 시간은 1시간 정도로 학교급별로 큰 차이가 없다.

3. 자신의 독서량에 대한 인식

2011년 조사에서 자신의 독서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전체 학생의 비율은 17.4%,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53.9%에 달한다. 학교급별로 비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초등학생은 31.6% 중학생은 13.3%, 고등학생은 8.8%인 반면, 독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초등학생은 28.7% 중학생은 61.6% 고등학생은 69.0%이다. 초등학생에서는 충분하다는 비율이 부족하다는 비율보다 높은 반면, 중학생부터 자신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성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충분, 부족에 대한 인식 비율은 거의 비슷하지만, 중·고등학생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여학생의 비율은 남학생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³⁰⁾ 위에서 살펴본 대로 여학생의 독서량이 더 적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더 높다.

4. 독서의 목적과 독서 장애 요인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 독서의 이유는 독서에 대한 가치나 신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2011년 『독서실태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 학생의 10% 이상이 독서의 목적이라고 응답한 항목을 비율이 높은 순으로 보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양과 상식을 쌓기 위해서', '책읽는 것이 즐겁고 습관이 되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이다. 이들 항목에 대한 초·중·고등학생의 최근 3년간의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독서 목적

구분	새로운 지식/정보			교양과 상식			책읽는 즐거움			시간보내기		
	2011	2010	2009	2011	2010	2009	2011	2010	2009	2011	2010	2009
전체	37.1	32.7	30.2	15.8	9.8	8.4	11.1	13.0	15.2	10.3	8.5	12.8
초	44.2	38.7	37.3	12.0	9.8	0.0	10.2	15.3	17.8	8.8	5.4	11.4
중	34.9	30.9	25.4	15.5	12.7	10.6	11.9	12.5	15.1	11.3	10.7	15.0
고	32.7	29.0	27.8	19.5	16.1	14.9	11.3	11.1	12.7	10.8	9.6	12.1

30) 한국출판연구소,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1), p.199.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와 '교양과 상식을 쌓기 위해서'의 비율이 모든 학교급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가장 우선시되는 독서 목적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이며 그 비율은 2011년 초등학교에서 44.2%로 가장 높다. 3년간 모든 학교급에서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의외로 초등학교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교양과 상식을 쌓기 위해서' 독서하는 비율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초등학교 순으로 낮아지며, '책 읽는 것이 즐겁고 습관이 되어서' 읽는 비율은 2011년 초등학교에서 크게 감소하여 중·고등학교에서 보다는 낮다. 중·고등학교를 성별로 비교할 경우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독서와 시간 보내기 독서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고, 즐겁고 습관이 된 독서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다.³¹⁾

학생들의 독서를 저해하는 주요 이유를 응답 비율이 높은 여섯 가지에 대해 역시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비교하였다.³²⁾ 독서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되지 않아서'다. 독서하는 이유(목적)와 독서하지 않는 이유(장애 요인)가 책 읽기 습관 유무에 달려있다는 것은 독서에서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독서습관의 부족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중이 점점 커진다. 그 다음으로 '학교 학원으로 인한 시간 부족'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사용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이어진다. 독서와 함께 학생들의 여가시간을 경쟁하는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이용, 그리고 TV 시청까지 합하면 2009년 21.0%에서 2011년 28.0%로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초등학교 22.2%, 중학생 30.2%,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28.6%를 차지하여 이들이 차지하는 중·고등학교의 여가 시간 비율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공부로 인한 시간 부족이나 독서습관 부족보다도 더 심각하고 특히 중학생에서 가장 심각하다.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와 같은 독서자료 독서지도와 관련된 요인 역시 합하면 17.5%로 중요한 독서 장애 요인이다. 학교급과 성별로 세분하여 비교할 경우 독서습관의 부족은 고등학교 남학생(28.2%)과 함께 중학교 여학생(27.2%)에서 가장 높다.³³⁾

<표 7> 독서 장애 요인

구분	독서습관 부족	학교/학원으로 인한 시간부족	컴퓨터인터넷 휴대폰 이용	TV시청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읽을만한 책이 없어서	
2011 전체	24.9	21.7	18.2	9.8	9.1	8.4	
학교급	초	23.0	24.3	11.3	10.9	11.3	10.0
	중	25.1	19.6	22.1	8.1	7.1	8.1
	고	26.3	21.5	20.4	8.2	6.4	5.2
2010전체	26.0	25.0	13.6	8.9	7.3	7.1	
2009전체	17.5	27.4	11.2	9.8	10.6	7.2	

31) 상계서, p.203.

32) 7순위 이하의 2.0% 이하로 영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상계서, p.200.

33) 상계서, p.200.

5. 독서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학생들이 독서의 효과, 독서의 가치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독서가 사회생활이나 인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2008년 『독서실태조사』), 독서가 학교/사회생활이나 인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2009년 『독서실태조사』), 그리고 독서가 성적 향상 또는 삶의 행복에 도움을 주는가(2011년 『독서실태조사』)에 대한 응답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표 8〉 독서의 영향력

구분		전체		초		중		고	
		영향	영향없음	영향	영향없음	영향	영향없음	영향	영향없음
2011	성적	51.0	15.5	64.0	8.5	45.7	18.4	44.5	18.8
	행복	49.8	14.9	56.3	11.1	42.5	20.5	51.0	12.9
2009		58.0	10.0	58.9	8.0	55.3	11.7	59.9	10.4
2008		58.3	9.4	57.0	8.7	53.2	11.1	64.7	8.3

(2010년 『독서실태조사』에는 조사 항목이 없음)

독서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2008년 58.3%, 2011년 50.4%로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64.7%에서 47.8%(성적과 행복 영향의 평균)로 감소폭이 크다. 그렇지만 독서의 영향력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인 것은 중학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 2011년의 조사에서 중학생은 초등학생과 함께 독서가 삶의 행복보다는 성적 향상에 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성적 향상보다 삶의 행복에 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VI. 학교도서관의 독서 교육에 대한 시사점

학생들의 독서 감소 현상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이를 우려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각각의 관점에서 독서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왔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생의 독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다.

2009년도에는 ‘사제와 학부모가 동행하는 독서와 토론활동으로 책 읽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급별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독서교육의 방향 제시, 독서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대상별 연수체제 개선, 그리고 학교도서관 기능 강화와 공공도서관과의 협력망 구축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였다.³⁴⁾ 2011년도에는 ‘초·중등학교, 즐겁고 자율적

인 독서활동 지원'을 목표로 교과시간, 창의적 체험 활동, 방과 후 활동 등 '모든 학교생활 속에서' 독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2009년도의 사업을 이어 교원과 학부모를 위한 독서교육 연수,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독서 지원체제 구축, 그리고 독서환경 구축, 자율적 독서운동 전개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³⁵⁾

2009년의 추진과제 중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학교급별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독서교육의 방향 제시'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아침독서 운동 등을 중심으로 한 독서 환경 조성, 그리고 중·고등학교 경우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활동과 토론 활동 활성화로 논리력 표현력을 향상시키도록 제안하고 있을 뿐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별도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한 언급은 없다. 2011년에 '모든 학교생활 속에서' '즐겁고 자율적인 독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각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담당할 역할, 즉 국어교과의 실천적 읽기와 타 교과의 독서연계 주제 탐구 학습,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독서교육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생들의 '즐겁고 자율적인 독서'를 표방하고는 있으나 그 접근 방법은 오로지 교육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교과과정 연계 독서, 교사와 학부모의 독서교육 연수 지원이라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즐겁지도 자율적이지도 않은 다분히 교조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즐겁고 자율적인 독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독서 행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학생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수평적 시각이 필요하다.

PISA 2009, 독서 태도와 독서 동기 연구, 그리고 독서실태조사는 각각 조사연구의 목적과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학생의 독서 특성과 독서 행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에서 이들 정보를 통합해보면 학생들의 독서를 증진시키기 위한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 지도에 다음과 같은 유용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학생들(만 15세)의 읽기 성적은 OECD국가들 중에서 최상위권이며, 독서에 대한 흥미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즐거움을 위한 독서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과 하루 1시간 이상 독서하는 학생의 비율은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은 독서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그다지 높게 인식하지 않으며 매년 낮아지고 있다. 그 결과 읽기 성적이 향상되는 것과는 반대로 학생들의 독서율, 독서량, 독서시간, 그리고 자신의 독서량에 대한 만족도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독서율, 독서량, 독서시간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데 특히 중학생에서 급격하게 저조해지고 있다.

둘째, 독서 실태를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학생들의 독서율, 독서 흥미, 그리고 읽기 성적이 높기 때문에 독서량 역시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및 독서 태도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중·고등학생의 독서하는 비율은 여학생이 높고 독서 태도도 더 좋지만, 실제 독서자의 경우

34) "학교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성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9. 9. 25).

35) "초·중등학교, 즐겁고 자율적인 독서활동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 7. 4).

여학생의 독서량은 남학생에 비해 적고 자신의 독서량과 독서 습관의 부족에 대해서도 남학생보다 깊게 인식하고 있으며 독서량에 대한 만족도도 남학생에 비해 떨어진다. 특히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 전혀 읽지 않는 비율과 다독하는 비율이 동시에 높은 반면 여학생은 독서하는 비율은 높지만 다독하는 정도는 남학생에 비해 떨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중학교 독서 교육에서는 전반적인 독서를 하라와 함께 전혀 독서하지 않는 다수의 남학생과 독서량이 부족한 다수의 여학생, 그리고 여학생의 독서 태도가 남학생에 비해서 좋다고는 하지만 OECD 전체 여학생의 독서 즐거움 지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의 독서 태도와 읽기 성적 간에는 매우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독서 태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여 여학생의 독서 태도가 더 좋으며 읽기 성적도 여학생 평균이 남학생 평균보다 35점이나 높다. 즐거움을 위해 독서하는 정도를 사분위로 나누었을 때 최하위 그룹과 최상위 그룹의 성적은 495점과 584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독서의 즐거움에 기초한 긍정적 독서 태도를 함양하고 독서 경험을 쌓는 것은 그대로 읽기 성적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이용하는 독서 자료의 유형과 읽기 성적 사이에도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자료의 유형별로 독서여부에 따른 성적의 차이는 비소설류에서 32점으로 가장 크며 소설류가 그 다음으로 30점이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가 예외적인 경우로 OECD 평균에서 보면 소설류의 독서 여부가 53점으로 성적 차이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여학생 보다 남학생의 경우 소설 읽기가 성적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화는 전 세계적으로 읽기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우리나라 남학생들은 독서자료 유형 중 만화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열독하는 만화의 종류와 그 영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용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설류의 독서가 읽기 성적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과 관련해서 독서 동기 중 내적 동기인 몰입과의 관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독서 자체가 목적이 되어 독서를 즐기는 행위인 몰입은 즐거운 독서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중학생의 50% 이상이 몰입을 경험하는 독서 자료의 요인을 보면 내용 형식면에서는 소설, 독서의 목적 및 의도성면에서는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기 위해서 독서할 때, 자율성과 타율성면에서는 자신이 선택하고 학과 공부와 관련 없이 자유롭게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읽을 때라고 한다.³⁶⁾

학생들이 즐겁고 자율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독서 자료가 소설이며 소설류가 전 세계의 학생을 통해 읽기 성적을 가장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라는 사실은 교과과정과 연계한 학습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고등학교도서관의 운영과 독서 지도 방법에 다양한 시사를 제공한다. OECD는 '많은 국가들에서 신문, 잡지, 비소설류를 읽는 학생들이 더 좋은 독자라고 하지만 이러한 자료

36) 이병기, “초·중등 학생의 독서 플로우 성향과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 (2010), pp.51-72.

가 읽기 성적에 끼치는 효과가 소설류 책에서의 효과만큼 뚜렷한 것은 아니다³⁷⁾고 평가하고 있다.

여섯째 독서시간 역시 읽기 성적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ISA 2009에서는 하루 평균 독서시간이 길수록 성적이 올라가지만 두 시간을 넘을 경우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서실태조사』에 의하면 실제 독서하는 중·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ISA 2009에서 우리나라 학생 중 하루 한 시간 이상 읽는 학생의 비율이 OECD 평균보다도 낮고 읽기 성적이 최고 수준인 학생 비율이 다른 독서 강국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사실은 높은 수준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충분한 독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읽기 성적은 얼마나 오랫동안 독서하는가 보다 독서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더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서 꾸준한 독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는 독서시간 확보를 위해 학교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학생들은 독서 자체를 즐기기보다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독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중학생은 독서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모든 학교급의 절반 이상 학생들은 지식과 정보를 얻거나 교양을 쌓기 위해 독서한다. ‘책 읽는 것이 즐겁고 습관이 되어서’ 독서한다는 비율은 1993년 『제 1회 국민독서실태조사』³⁸⁾에서 초·중학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독서한다는 비율보다 낮았다. 초등학생들조차 독서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능적 독서의 비율이 독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즐기는 비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이 현상은 세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습독서의 강조로 실제 학생들의 독서활동이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 지식 정보 교양을 추구하는 독서로 치우쳐진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2011년의 『독서실태조사』에서 지난 일 년 동안 단 한권도 읽지 않은 초·중·고등학생의 54.7%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독서한다고 응답³⁹⁾한 사실에서 학생들의 응답이 자신의 실제 독서 목적과는 관계없이 관념적으로 이해한 독서 이미지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독서실태조사』에서 독서의 목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제시된 선택지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책 읽는 것이 즐겁고 습관이 되어서’라는 표현은 독서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지 독서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인간, 자연, 사회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치를 깨달아 가는 것은 책 읽는 즐거움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상호배타적인 아닌 문항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적절하지 못하다. 학생들의 독서 태도를

37)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전게서, p.105.

38) 제 1회 국민독서실태조사(서울 : 한국출판연구소, 1993), p.128.

2008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는 ‘책 읽는 것이 즐겁고 습관이 되어서’ 독서한다는 초·중·고생 전체의 비율이 28.1%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독서한다는 비율 17.6%보다 월등하게 높았다(p.181). 그러나 1994년도부터 계속되는 전체 경향과 2009년 이후의 비율과 비교할 때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39) 한국출판연구소,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1), p.203.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러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생들이 독서를 그 자체로 즐기기도 하지만 지식 정보 또는 교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현상은 중·고등학생의 독서 동기 연구에서 몰입, 읽기 효능감 등의 내적 동기보다 사회적 상호작용, 경쟁과 같은 외적 요인의 영향이 강하다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적 동기 요인은 독자의 개인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독자가 속한 사회문화적 상황의 산물⁴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외적 요인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쟁이 심한 우리 교육 환경이 학생의 발달단계와 읽기 능력에 맞는 독서를 충분히 즐기기도 전에 독서를 교육 수단으로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면적으로 몰입하여 즐길 수 있는 독서의 기회를 이리저리한 교육적 명목으로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독서 교육 차원에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아홉째, 독서 장애요인으로 학교나 학원 공부로 독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독서습관 부족과 컴퓨터 인터넷 TV 시청 때문이라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컴퓨터 인터넷 TV 시청 때문에 독서하지 않는 비율은 중학생에서 가장 높다. 온라인 읽기 참여가 가장 높은 그룹의 읽기 성적이 참여도가 가장 낮은 학생과 함께 적절한 참여 학생의 성적보다 낮다는 측면에서 학교도서관은 도서관의 주요 매체인 인쇄매체 읽기의 중요성과 효과, 그리고 여가 시간의 올바른 활용에 대한 중학생들의 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열째, 읽기 성적이 OECD 평균에 비해 상향평준화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2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 비율이 2000년 조사이후 계속 5~6% 대에 머물러 있다.⁴¹⁾ 독서는 수평학습으로 쉬운 책이라도 관심이 있는 책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수준이 높아지는⁴²⁾ 특성이 있다. 학교도서관은 읽기가 미숙한 학생들의 읽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록 중학교라 할지라도 학교급과는 별도로 다양한 수준의 독서 자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은 다양한 수준의 장서를 제공함으로써 독서의 수월성 교육 뿐 만아니라 읽기가 미숙한 학생들의 독서를 격려하고 지도하기에 적합한 독서 교육의 장이다. 이것은 교육 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공공교육 시설로서 학교도서관의 사명이기도 하고 장서와 예산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가장 열악하면서도 학교도서관에 대한 독서 자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⁴³⁾ 중학교도서관이 선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40) 이순영, “독서동기와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독서연구, 제16호(2006), pp.364-365.

41) 2수준 미만의 학생 비율은 PISA 2000에서 PISA 2009까지 계속 5.7%~6.8% 사이에 있다. 김경희 등, 2010, 전계서, p.88.

42) 전정재, 사랑의 혁명(서울 : 시공사, 1993), p.139.

43) 김순남, 초·중등학생의 독서 실태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1), p.365의 학생들의 월평균 독서량 중 학교도서관 장서 독서량의 비율을 계산하면 초등학교 55%, 중학교 64.4%, 고등학교 7.3%임.

VII. 맺는말

독서는 매우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활동이며 다양한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자체로 즐겁거나 또는 독서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이 뚜렷해서 다른 어떤 대체 활동보다 우선시되지 않고는 현대 사회에서 독서를 꾸준히 생활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많은 학생들은 긍정적인 독서 태도를 함양하고 독서를 습관화하기 전에 인터넷,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TV 시청 등에 더 탐닉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 독서가 이들보다 더 재미있다고 느끼지 못하면 독서는 학생들의 생활에서 점점 밀려나게 될 것이다.

즐거운 독서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이 읽기 능력에 확연한 차이를 가져오며 그 결과가 표준화된 점수로 명확하게 입증된다는 사실은 학생들의 독서에 관심을 갖고 독서지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PISA 2009의 분석 결과와 『국민독서실태조사』의 결과, 그리고 독서 태도와 독서 동기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상호 참조하여 효과적인 독서교육 방향 설정을 위해 학교도서관이 유념해야 할 학생들의 독서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학생의 성별, 독서 자료의 유형, 독서 시간, 독서량 등 독서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태도가 읽기 능력에 분명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학생의 읽기 능력이 더 높고 독서 태도도 긍정적이므로 독서량도 더 많을 것이라는 통념과 독서가 내면적인 활동이므로 내적 동기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일반적 이론이 실제의 중학생 독서에서는 부분적으로 다르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반적 통념과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는 연구 내용들은 결국 학생들의 독서와 그와 관련된 요인들이 이전보다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하게 변화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과 이해는 학생들의 독서를 증진시키기 위한 왕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독서를 즐길 수 있어야 독서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간의 연구에서도 계속 주장되어 온 바이지만 읽기 수준이 서로 다른 학생의 독서 즐거움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장서를 구비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할 것, 경쟁적 교육 환경에서 책 읽을 수 있는 여유 시간을 학교생활 내에서 확보할 것,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⁴⁴⁾ 그리고 독서 자체의 즐거움을 도외시하고 다른 목적, 예를 들면 상상력 창의성 함양, 표현력 논술력 강화, 또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습득 등 지나치게 교육적 명목을 앞세운 수단으로 독서를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

44) 류보라, "청소년의 독자 인식과 독서 실행의 관계 연구," 독서연구, 제24호(2010), p.271.

박연민, 최숙기, "읽기 동기 신장을 위한 자기 선택적 독서 프로그램 구성 방안," 독서연구, 제19호(2008), pp.217-220.

황금숙 등,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선진화 방안 연구(서울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0), pp.238-243.

성은 독서율과 독서량이 초등학교에 비해 급감하면서도 교육계의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어 학교도서관의 수준마저 열악한 중학교도서관에서 가장 절실하다.

이제까지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가 실시하는 독서 교육은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전교생 아니면 한 학년 또는 한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불특정하고 보편적인 독서지도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반면 중학생의 독서량이 급감하는 추세에서 독서 증진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학교급, 학년의 경우라도 학생의 성별, 읽기 능력, 독서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태도, 독서 경험과 독서량, 선호하는 독서 자료의 유형, 독서 시간 등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을 그룹화하여 차별화된 독서 프로그램으로 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별화된 세심한 독서지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업무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독서자료의 유형을 식별하고, 독서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독서수준을 파악하고, 독서상담을 할 수 있고, 독서한 내용에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학생 개인과 집단에 있어서 또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떻게 변화하는지 현장에서 지켜보고 대응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 2011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1.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OECD교육지표: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1.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11.
- 곽철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만족도 조사 연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5.
- 김경희 등.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2009)-본검사 시행 보고서-.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 김경희 등.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2009) 결과 보고서.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 김순남. 초·중등학생의 독서 실태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2011.
- 류보라. “청소년의 독자 인식과 독서 실행의 관계 연구.” 독서연구, 제24호(2010), p.259-287.
- 박영민. “중학생 읽기 동기의 구성 요인.” 독서연구, 제16호(2006), pp.297-334.
- 박영민, 최숙기. “읽기 동기 신장을 위한 자기 선택적 독서 프로그램 구성 방안.” 독서연구, 제19호(2008), pp.217-220.
- 서수현, 정혜승. “중학생의 읽기 태도 양상.” 독서연구, 제27호(2012), pp.258-283.

- 이병기. “초·중등 학생의 독서 플로우 성향과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2010), pp.51-72.
- 이순영. “독서 동기와 몰입 독서의 영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26집(2006), pp.403-425.
- 이순영. “독서동기와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독서연구, 제16호(2006), pp.364-365.
- 이영진, 조성만, 권태현. “고등학생의 읽기 동기 요인 분석.” 독서연구, 제24호(2010), pp.345-386.
- 전정재. 사랑의 혁명. 서울 : 시공사, 1993.
- 정혜승. “읽기 태도의 개념과 성격.” 독서연구, 제16호(2006), pp.383-405.
- 제 1회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 한국출판연구소, 1993.
- 조지민 등.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교육정책 개선 방안.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 “초·중등학교, 즐겁고 자율적인 독서활동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1. 7. 4).
- 최숙기. “중학생의 읽기 동기와 읽기 태도에 관한 상관성 연구.” 독서연구, 제23호(2010), pp.345-380.
- 최재황, 광철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만족도 조사 연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5.
- “학교독서교육 및 도서관 활성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9. 9. 25).
- “학교총괄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 [인용 2012. 10. 13]
- 한국출판연구소. 2008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08.
- 한국출판연구소. 2009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09.
- 한국출판연구소. 2010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0.
- 한국출판연구소.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1.
- 황금숙 등.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선진화 방안 연구.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0.
- Nell, Victor. “The Psychology of Reading for Pleasure: Needs and Gratifications.”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23, No.1(1988), pp.6-50.
- PISA IN FOCUS 2011/8(September)
<<http://www.pisa.oecd.org/dataoecd/34/50/48624701.pdf>> [cited 2012. 3. 8].
- Stanovich, Keith E.. “Matthew effects in reading: Some consequenc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acquisition of literacy.”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21, No.4(1986), pp.360-407.

